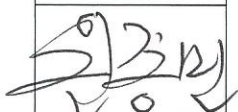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2018학년도 제3차 회의록

위원장 서명  


1. 회의 일시 : 2018. 11. 20(화) 16:00 ~ 17:00
2. 회의 장소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1호 중회의실
3. 회의 참석자
  - 위원장 및 위원(6명) : 원종민, 김수진, 진정란, 김향미, 유정은, 윤이식
  - 간 사(1명) : 최호준
  - 불 참(1명) : 노광진
4. 회의 안건
  -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기타 학교 현안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원종민 위원장 교직원 2인, 학생대표 2인 이상의 출석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언함.
6. 회의내용
  - 1)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원종민 위원장 :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고자 함.

서명 : 







노광진

 윤이식

<주요발언>

○ 원종민 위원장 : 배부해드린 자료의 2018학년도 예산(안) 총괄표를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 원종민 위원장 :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등록금 회계 181억원, 비등록금 회계 84억, 총 합계 263억원(내부거래 2억)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 원종민 위원장 : 등록금회계 수입은 등록금수입 147억과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32억, 기타 수입 약 1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록금 수입 147억 중 학부 등록금은 132억원 임. 올해 입시 중 신·입학 일반전형 외국어계열에서 경쟁률이 발생하는 등 입시관련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원종민 위원장 : 등록금회계 지출은 각종 비용지출 146억과 감가상각상당액 적립 2억,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24억, 예비비 약 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비용에 대한 전수조사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였음.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예비 자원 및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우발적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8억원을 편성하였음. 또한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24억원을 편성하여 대학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였음.

○ 원종민 위원장 : 비등록금회계 수입은 전입 및 기부수입 43억원과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 30억원,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3억원 등 총 84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전입 및 기부수입은 국가장학금 및 기타국고지원 장학금이 4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은 전자도서관 건립에 따른 건축기금 인출 수입임.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1억을 전입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추경예산에서는 이를 제외했음. 대신 올해 법인에서 기본금으로 전입해주는 금액이 전년 대비 약1억원 증가하였으며, 기본금 전입이 끝나는 차 년도부터 다시 법정부담금을 전입해주기로 하였음.

○ 원종민 위원장 : 비등록금회계 지출은 연구학생경비 45억원, 고정자산 매입 지출 30억원,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 7억원 등 총 85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연구학생경비 45억원 중 41억원은 교외장학금이며, 외부연구용역, 입시경비, 평생교육원 콘텐츠 입차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자도서관 건립에 따른 비용은 고정자산 매입 지출에 반영되어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면서 심의하겠습니다.

○ 윤이식 위원 : 법정부담전입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함.

○ 최호준 간사 : 올해 기본금이 증가한 상황, 법정부담전입금이 감소한 배경에 대해 설명함.

○ 원종민 위원장 : 등록금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임. 학교차원에서 입학생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진정란 위원 : 올해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협력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정원 외 학생 모집을 위해서 총장님 이하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 윤이식 위원 : 학교의 등록금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이버외대만의 추세인지, 사이버대 전체의 추세인지 문의함.

○ 김수진 위원 : 사이버대 중 일부 대학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유정은 위원 : 외국인 학생이 입학하게 되면 등록금을 전체 다 납부하는지 문의함.

○ 김수진 위원 :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등록금을 납부함. 다만 부모가 모두 외

국인인 외국인은 정원 외 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음.

○ 윤이식 위원 : 비어문계열의 입시 상황은 어떤지 문의함.

○ 원종민 위원장 : 비어문계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안전학과를 신설할 예정임.

○ 진정란 위원 : 전체 사이버대학에 관련 학과가 6개 있는 상황이며, 새로운 학과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윤이식 위원 : 현장에서는 산업안전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임. 소방학과 같은 경우 대형 건물에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의 배치가 법제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으며, 산업안전학과도 토목/건축 등에 있어 인력 배치가 법제화 될 경우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며, 학교 발전을 위해 좋은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 됨.

○ 김향미 위원 : 산업체 위탁생 입학 절차에 대해 문의함.

○ 진정란 위원 : 입학학생처에서 산업체 위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체에서 협약에 관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약을 맺고 장학 등 관련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유정은 위원 : 외국인 학생이 입학을 할 경우 물가의 차이가 있어 등록금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음. 외국인 학생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함.

○ 진정란 위원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공하는 별도의 장학 혜택은 없음. 다만 외국인 커뮤니티나 단체와 협약을 맺고 그 외국인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원종민 위원장 : 현재 등록금 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닝 교육이 발전함에 따라 차세대 LMS 구축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장학금을 늘리는 등 학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진정란 위원 : 학생지원비 항목을 보면 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이 있음. 외국어 특성화 대학에 맞게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탐방 등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

○ 유정은 위원 : 타 사이버대 대학원과 우리 학교를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지인이 있음. 지인의 말에 따르면 타 사이버대와 비교해서 우리 학교의 콘텐츠 수준은 굉장히 높다고 함.

○ 원종민 위원장 : 인건비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학생 만족도를 제고를 위해 튜터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윤이식 위원 : 전체 예산중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문의함.

○ 최호준 간사 : 등록금회계 180억원 중 인건비가 약70억원을 차지함.

○ 윤이식 위원 : 등록금 수입을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함.

○ 원종민 위원장 : 입학 정원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정원 외 모집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윤이식 위원 : 오프라인 대학은 강사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이버대학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함.

- 진정란 위원 : 사이버대학도 오프라인 대학과 똑같이 강사법 적용을 받음.
- 김수진 위원 : 온라인 대학의 특수성으로 인해 강사법을 준수함에 있어 애로사항 등이 있음. 공간문제 및 비용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임.
- 진정란 위원 : 그 밖에도 사이버대학에 대한 여러 제도적인 여건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한국어 교육 실습에 있어서도 제도가 변경되면서 관련 센터를 새로 구축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임.
- 원종민 위원장 :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음.
- 위원들이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함.

## 2) 기타 학교 현안

- 유정은 위원 : 시스템 운영 업체가 바뀌면서 일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그동안 학위수여식에서 식사를 제공했었는데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식사 제공이 없어 학생들의 불만이 있었음. 지난여름 냉방시설 고장이 있었으며, 이때 수리 기간이 길어서 불편했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있었음.
- 윤이식 위원 : 냉방시설의 경우 신속한 고장 수리를 위해 EHP 관련 개선 사항을 요청했었으나 시행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함.
- 김향미 위원 : 다른 비용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구성원에 대한 복지에 투자해서 각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이로 인해 각종 서비스의 수준, 학업 및 업무능력도 향상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학교가 더 발전할 것이라 생각 됨.
- 원종민 위원장 : 위원들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관련 부서와 함께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음.

## 7. 폐회선언

- 원종민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함. 끝.